

< 성경칼럼 : 요한복음 열 여덟번째 >

요한복음 17 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난다. (마 26: 39)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주기도문' 은 어떤가? (마 6:9-13) 그러나 요한복음 17 장의 기도는 다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사뭇 다르다. 이 기도속에 나에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요한복음 17 장의 기도속에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가 있다고 고백했다. (17:5)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란 도대체 무엇일까? 난 오랜동안 매우 궁금했었다. 예수님은 기도속에서 그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를 지금 바란다고 했다. (마치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잠시 생각을 해보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만 존재하고 있던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무엇을 하셨기에 '영화롭다'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 가기 전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일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

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라고 고백한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7:4)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7 장이 26 절 밖에 안되는 짧은 글이지만 무려 40 번 이상을 하나님을 '아버지' 로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예수님의 친근한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 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하셨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종종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전능자', '전지자' 혹은 '능력자', '통치자'로 표현 되어 왔다. 그 '전능' 과 '전지' 의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매우 적절한 것이기도 하다) 능력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지닌 '전능자' 혹은 '전지자' 로서의 하나님은 간혹 통치적이고 지배자적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능력자가 정한 규칙 (죄라고 해도 좋다) 에 거스른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죄인' 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으로 규정 되어야 한다. (칼 바르트 는 이런 지배자적 능력으로서의 구원의 하나님에대한 신학적 표현을 불편해 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전능자' 혹은 '전지자' 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고 통치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전에 분명히 무엇을 하시고 계셨다. 예수님의 기도속에서 표현된 '아버지' 라는 표현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은 '창세 전' 에 전능자 보다 '아버지' 로서 일을 하시고 계

셨다. 생각을 해 보라! ‘전능자’란 개념의 하나님과 ‘아버지’로서의 개념의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 전능자란 능력을 말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말한다. 전능자는 규칙을 정하지만 아버지는 규칙 아닌 무조건적 은혜를 나눈다. 전능자는 죄를 판단 하고 심판해야 하지만 아버지는 죄를 대신 짊어진다. 전능자는 권위를 의미 하지만 아버지는 인격을 의미한다.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까?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바로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속에 ‘하나’라는 개념안에 있었다. (17: 10-11; 21-23) 창세 전에 하나님은 정해진 법칙안에서 모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전에 그분은 아버지로서 사랑을 하고 계셨고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 세상에 보여 주시기를 원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 하시므로’라는 표현으로 그 창세전의 아버지 사랑을 드러내셨다. (17:24)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줄곧 들어왔던 것이 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것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제일 교리문답' 이었다. (소요리문답 질문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부인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규칙'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

친다. (소요리 문답 질문 2) 내가 어려서 이해한 하나님은 그 유일한 규칙 (성경의 말씀) 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자라면서 깨달은 것은 달랐다. 난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킬수 없는 나를 발견했고 괴로워 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나의 구원은 창세 전의 전능자의 규칙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서 하나님 그안에 창세 전에 함께 존재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사랑의 관계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순은 ‘아버지’ 라 부르면서도 ‘전능자’ 의 규칙속에서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엄격한 규칙을 지키려다 실패할때 조금씩 깨닫는다. 나 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화로움' 이란 찬란하게 빛나는 규칙의 완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빛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한다는 것은 허왕 되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 안에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 장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도 그 아버지 사랑안에 하나되게 해 달라고 말이다. (17:21-23)

기독교의 진리란?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안에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 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다. 창세후 가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창세 전에 존재했던 이 '진리' 즉 전능자이기전에 먼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안에 사랑으로 하나되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안에서 사랑으로 이미 하나 되어 있음을 깨달을때 가능해 진다.